



조건 제 810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음력 5월 3일)

## “전남광주특별시, ‘5극 3특 선도모델’로 육성”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정부지원 강조  
민형배 “5극3특 실현”...김대중, 교육자치권 확대를  
성공적 출범 위해 재정 인센티브 조기지원 등 건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전남 나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살피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나주 빚가람혁신도시 빚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정은승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원장, 광주시·전남도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단순한 지방행정 통합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모델로 규정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다른 지역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정부의 지역발전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지 자율권과 재정 인센티브 보장, 권한 강화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해 왔다”며 “출범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강화해 통합특별시가 지역혁신의 모범이자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과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목표인 5극 3특 체제가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통합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지역주도 성장의 다음 길도 열릴 것으로 본다”며 “전남광주의 성장이 곧 대한

민국의 성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자치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면 교육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는 산업이 사람을 끌어오는 시대 아니라 교육이 사람과 기업을 함께 끌어오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서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자율성이 필수적”이라며 “조지과 인사, 재정 분야에서 특별시에 걸맞은 교육자치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재정 인센티브 자율성 보장과 조지 지원, 특별시 조직 지급 기준 상향,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 원칙의 구체적 제도화, 권한 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자치법규 정비와 위원회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부 및 안내표지판 정비 등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안정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시·도 통합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지방자치단체다. 면적은 1만 2864㎢로 전국 3위, 인구는 317만명으로 전국 5위 규모이며 지역내총생산은 158조 8000억원대로 전국 3위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 배정 우대 등 통합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빚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 정은승 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통합시의회’ 첫 의장선거 사실상 ‘2파전’

‘다선’ 송형곤·전경선 물밑경쟁 치열...광주는 신중  
민주당 83명...전남·광주 의원 간 의장단 연대 솔솔  
상임위원장 권역별 안배...전남 7석·광주 4석 ‘유력’



송형곤 전경선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선거가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송형곤(고흥1) 의원과 전경선(목포5) 의원이 유력 주자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별도의 후보군이 움직이면서 최종 관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의 상징성을 고려해 추대론도 제기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원들의 자율 경쟁을 통한 선출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경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장 선거와 함께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어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막판 변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지

역 평가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체 의원 9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3명에 달해 사실상 민주당 내부 논의가 초대 의장단 선출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조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도의회 4선 송형곤 의원과 3선 전경선의 의원이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송 의원은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여러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며 의회 운영 경험을 쌓아왔고, 전 의원 역시 3선 중진으로 원내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한때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성일(해남) 의원은 이번 의장 선거에 나서지 않고 후반기의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막판 변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권에서는 3선 심철의(서구4) 의원과 조석호(북구3) 의원 등이 후보군

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광주권 후보들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원 구성 협상 과정에 따라 출마 여부와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성에서 열린 민주당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의장단 구성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전남의 경우 당초 추대론에 힘이 실어졌으나 최종 경선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도 각 후보 진영의 물밑 접촉과 의견 수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 양동시장 ‘백년시장’ 선정

2년간 최대 30억 지원

광주의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이 정부가 선정한 ‘백년시장’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대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도약한다. ▶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동구 동명동 상권, 강진 중앙로 상권, 고흥 우주인브루어리거리 상권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첫 선정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은 올해 전국 10곳이 선정된 백년시장에 포함돼 향후 2년간 최대 3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동구 동명동 상권은 광주 최초 글로벌상권으로 선정돼 2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으며, 전남 강진 중앙로 상권은 로컬테마상권, 고흥 우주인브루어리거리 상권은 유망골목상권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

31

nowNAJU

# 나주 방문의 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나주시  
나주시의회

동신대학교  
농어촌공사  
나주축산농협  
나주시산림조합

총장 이주희  
나주지사  
조합장 나상필  
조합장 송흥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방문의해  
www.naju.go.kr/tour